

요즘 안방극장, 뻔~한 결말은 없다



Jtbc '천국보다아름다운'



넷플릭스 '탄금'



디즈니+ '나인 퍼즐'

연쇄 살인범을 추적하는 형사물부터 애절한 멜로를 섞은 미스터리 사극, 천국에서 만난 의문의 인연을 추리하는 휴먼 드라마까지.

지난 24일 방송가에 따르면 스릴러, 사극, 로맨스,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미스터리를 가미하거나 추리하는 재미를 버무린 작품들이 잇따라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우선 배우 손석규와 김다미가 주연한 디즈니+ 새 시리즈 '나인 퍼즐'이 눈길을 끈다.

21일 6회까지 공개된 이 작품은 10년 전 발생한 미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현직 프로파일러인 이나(김다미 분)와 그를 의심하는 형사

10년 전 발생한 살인 미결 사건 연인과 천국에서 다시 재회 등 형사물·멜로·휴먼 드라마에 현실에는 없는 미스터리 가미 예측 불가 스토리 추리하는 재미

한샘(손석규)이 연쇄 살인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다.

현장에 단서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연쇄살인범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이나에게 택배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보내온다.

살인범의 정체는 이나 본인, 혹은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한샘, 정신과 의사 이승주(박규영), 병원 직원 황인찬(노재원) 등 주변 인물 중 하나라는 점이 보는 내내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넷플릭스에서 16일 공개된 시리즈 '탄금'도 감춰진 사실을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다. 시리즈 '중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손더 게스트', '보이스' 등을 만든 김홍선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 작품은 12년간 실종됐다가 돌아온 대상단의 후계자 홍광(이재욱)과 그의 실체를 의심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이복누이 재이(조보아)의 이야기를 그린다. 소설 '탄금: 금을 삼키다'가 원작이다.

극 초반부는 어릴 적 기억을 전부 잃었다는 홍광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쌓아 올리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배일에 써인 스토리를 풀어가는 재미를 내세운 작품으로는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귀공'도 있다.

'귀공'은 영매(靈媒)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유리(김지연)와 이무기 강철에게 몸을 빼앗긴 검서관(檢書官) 윤감(육성재)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약연으로 시작한 여리와 윤감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서사를 펼쳐내는 한편, 왕가에 깊은 원한을 품은 채 귀 내에서 기이한 사건을 일으키는 팔척귀, 그리고 뒤에서 그 팔척귀를 조정하는 '어르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답다'도 설정만 놓고 보면 가슴 뭉클한 휴먼 드라마 같지만, 미스터리 요소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죽음을 맞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로맨스를 그린다. 배우 김해자와 손석규가 부부 호흡을 맞췄다.

초반부는 젊은 외모의 남편과 나이 든 아내가 투닥대는 부부생활을 소재 삼아 웃음을 자아내며 전개를 펼쳐낸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두 부부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천국보다 아름답다'은 따뜻한 감성이 돋보였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함께 만든 김석운 감독과 이남규, 김수진 작가가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연합뉴스

이란 감독 '파나히' 칸 '황금종려상' 영예



파나히 감독

이란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잇 워스 저스트 언 엑시던트'가 올해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영화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이 영화제 최고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씨클'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데 이어 황금종려상까지 안으면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 상을 모두 석권한 감독이 됐다. 앙리 조르주 클루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로버트 엘트먼, 장뤼크 고다르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다.

이란의 각종 사회·정치 문제를 파고든 작품을 주로 선보인 파나히 감독은 반정부 시위, 반체제 선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됐던 인물이다. 2010년 20년간 영화 제작 금지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몰래 영화를 만들어 해외 영화제에 출품해 왔다. 2022년 재수감됐다가 2023년 2월 석방 요구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석방 후 처음 만든 작품인 '잇 워스 저스트 언 엑시던트'는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남자가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힌 경찰과 닮은 사람을 마주치며 일어나는 일을 그린다.

기립박수 속에 무대에 오른 파나히 감독은 "국내외 모든 이란인들은 모든 문제와 차이를 제쳐두고 힘을 합치자"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라고 말했다고 AFP·AP 통신은 전했다.

2등 상인 심사위원대상은 두 자매가 관계가 소원한 아버지와 겪는 일을 그린 덴마크 출신 노르웨이 감독 요아킴 트리에르의 '센티멘탈 밸류'가 받았다.

올해는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가 없었다. 비노슈가 이끈 심사위원단에는 한국인으로 역대 6번째로 심사위원을 맡은 홍상수 감독을 비롯해 미국 배우 할리 베리, 제러미 스트롱, 인도 여성 감독 파얌 카파디아가 참여해 수상작을 가렸다. /연합뉴스

BTS RM '로스트' 샤크 뮤비 어워즈 3관왕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사진)이 솔로 2집 타이틀곡 '로스트'(LOST) 뮤직비디오로 '샤크 뮤직비디오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샤크 어워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스트' 뮤직비디오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 상의 시상식에서 '베스트 뮤직 비디오', '베스트 R&B/솔 비디오', '베스트 디렉션' 등 3개 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RM이 피처링한 미국 래퍼 메건 디 스텔러의

'네바 플레이'(Neva Play) 뮤직비디오는 '베스트 애니메이션' 수상작으로 뽑혔다.

올해 63주년을 맞은 샤크 어워즈는 광고, 디자인, 단편 영화와 뮤직비디오 분야에서 창의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2024년 5월 공개된 '로스트' 뮤직비디오는 RM이 생각의 미로에서 탈출하는 여정을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